

7일 Market Index			
코스피	2443.96	코스닥	824.37
	(-58.41)		(-15.08)
금리 (미국 9년)	3.887	환율 (원-달러)	1307.90
	(+0.010)		(+10.60)

공공 건설 하도급 금지 등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추진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멀어지는 금리인하... 해외 IB, 韓 물가 전망치 올렸다

〈투자은행〉

중동전쟁 발발 유가 등 변동성 확대
JB모건 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내년 韓 물가상승률 2.4% 예상
한 달 전보다 0.2%p 더 높여
“금리인하 내년 6월 이후 될 것”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들쭉거리며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내년 우리나라의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물가의 둔화시기가 더더 질수록 금리인하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 이달 말 발표하는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전망한 내년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4%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발표된 전망치 2.2%보다 0.2%p 높은 수준이다. 투자은행은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씨티, 골드만삭스, JB모건, 홍콩상하이은행(HSBS), 노무라, UBS 등 8곳이다.

노무라증권은 물가상승률을 1.7%에

〈경제전망보고서(8월): 성장·물가 영향 대안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성장 및 물가 영향 대비 (baseline, %p)	
	2023년	2024년
① 주요국 경제의 양호한 성장흐름 지속 및 경기 조기반등 I	▶ 성장 +0.1 ▶ 물가 +0.1	▶ +0.2 ▶ +0.3
② 중국 부동산 부진지속에 따른 성장세 추가 약화	▶ 성장 -0.2 ~ -0.1 ▶ 물가 -0.1	▶ -0.3 ~ -0.2 ▶ -0.3
③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추가 상승	▶ 성장 -0.1 ▶ 물가 +0.0	▶ -0.1 ▶ +0.1

한국은행

서 2.3%로 0.6%p, 홍콩상하이은행(HSBS)은 2.1%에서 2.5%로 0.4%p 올렸다. 평균치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투자은행은 노무라증권·UBS(2.3%)과 JP모건(2.2%) 등 3곳이다.

투자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높인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6.89달러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3월 20일 70.31달러와 비교해 16.58달러 올랐다. 지난 9월 96.75달러까지 오른 뒤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은도 이달 말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3.5%,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4%로 내다봤다. 당시 물가전망치에 반영된 국제유가가 84달러인 만큼 인상분을 추가해 물가상승률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성이 확대돼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에는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내려오고, 내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사태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시 내놓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 이상이 될 확률이 크다.

한은은 지난 8월 대안적 시나리오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2024년 물가가 0.1%p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같은 예상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5%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을 경우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10월 기준 평균 3.6%(상반기 4.0%·하반기 3.3%)로 전망치를 0.1%p 벗어난 상태다. 0.1~0.2% 이상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전망치가 오르면 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물가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물가목표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며 “금리인하의 최우선 조건은 물가안정인 만큼, 내년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기부진 완화 불확실성 여전”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등 경기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나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부진과 관련해 KDI는 10월 경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1.3%)보다 높은 2.8%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광공업생산(3.0%)은 IT수요 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이(8.4%→23.7%)이 크게 증가했다.

KDI ‘11월 경제동향’ 보고서

9월 전 산업생산 2.8% 증가율
IT 수요 회복에 반도체 생산 증가
제조업 가동률 73.2%, 재고 감소
10월 수출 반도체 등 부진 완화

서비스업생산(2.2%)은 지난해 기저 효과 탓에 1년 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그럼에도 전월에 비해서는 여행수요가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2.4%), 운수 및 창고업(2.2%) 등을 중심으로 0.4%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3.2%로,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또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이 124.3%에서 113.9%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된다.

10월 수출(-4.4%→5.1%)은 반도체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부진이 완화됐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8.5%→17.3%)이 대폭 증가했고, 중국 수출(-17.6%→-9.5%)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긴축 통화정책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돼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미국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이 파급되며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내수 경기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현대차·기아 ‘공격 투자’... 포드·GM 등은 ‘속도 조절’

‘전기차 성장 둔화’ 엇갈린 대응

국내 완성차, 전용공장·생산 확대
해외 업체, 투자 줄이고 공장 연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대한 엇갈린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글로벌 전기차 생산 기지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개발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이는 반면 포드와 GM(제너럴 모터스) 등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 생산·투자 속도 조절 방침을 내놓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는 802만대 판매되며 전년 대비 67.9% 성장했다. 지난 2020년 222만대 수준이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 471만대로 두배 이상 성장한 것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글로벌 전체 완성차 판매량은 8063만대로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 조지아주 엘라벨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HMGMA는 메타플랜트 착공 1주년을 맞아 공사 진행률을 공개하면서 생산 시설 기초 공사를 99.9% 완료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전기차 비중은 2020년 2.9%, 2021년 5.9%, 2022년 9.9%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완성차 업체의 온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는 쪽

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연산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완공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오는 13일 국내 최대 자동차공장인 현대차 생산 거점인 울산 공장 내 23만㎡(약 7만1000평) 부지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해 짓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착공한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 기아오토랜드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착공해 현재 건설중이다.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원 규모를 투입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짓는 중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올해 4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원을 투자해 전기차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2030년에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까지 확대하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총 생산량을 364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최근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와 손잡고 국내에 배터리팩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 출시를 위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KG모빌리티는 중형 SUV 토레스의 전동화 모델 ‘토레스EV X’를 최근 낮은 가격에 출시하고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4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 총리 “킬러규제 혁파·투자 인센티브 강화...최고의 투자 환경 조성”
▲ 원희룡 국토부 장관, 與 지도부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요청 /사진 뉴시스

▲ 김종민 “선거제 병립형 퇴행 안돼...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 홍익표 “중소기업 경영성 부당 알아... 상생협력 만들어낼 것”



▲ ‘대장동 의혹’ 5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유동규와 법정서 마주 /사진 뉴시스
▲ 유병호 소환 불응에... 여 “재판 안 가는 분도” vs 야 “체포영장 청구”